

Robert Vannoy 박사: Kings, 강의 8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randt

예후 이전의 분열된 왕국(기원전 931-841년)

II. 예후 이전의 분열된 왕국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 치하 연합 왕국, 1-11장"인 로마 숫자 "I"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준 개요에서 로마 숫자 "II"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예후 이전의 분열된 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왕국은 기원전 931년에 분열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전멸시킨 예후의 혁명은 B.C. 841년이다. 대략 100년 기간, 즉 B.C. 931-841년입니다. 로마 숫자 "II"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A. 혼란

1. 배경

대문자 "A"는 "The Disruption"이고 "1"은 "Background"입니다. 당신은 열왕기상과 익스포지터의 성경 주석에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어떤 선례도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경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즉, 한동안 주변에 있었던 혼란을 초래한 요소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을 외국 땅에서 왔다고 대표하여 그에게 온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중심부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그 땅에 이방인으로 남아 있도록 허용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살펴보았으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으매 회중의 족장들이 맹세로 이를 확정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웃이고 타국인이 아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 9장 1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19절: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우리의 맹세를 주었고 우리는 지금 그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을 살려 두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를 어긴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절에 거기에 언급된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여아림이니 이것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남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이루는 성읍들이라 때로는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기브온의 뼈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 땅의 중심에 거주하는 이질적이고 밀접하게 결속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수있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단순히 영토와 인구에 관한 한 두 개의 주요 지파가 있었다는 사실일 수 있으며,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 북쪽의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요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주요 지파인 에브라임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 주요 지파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를 다스렸다

그런 다음 또한 이 시간 이전의 일부 내러티브에서 접하게 되는 이전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그가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7년 동안 다스렸지만 유다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그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방 모든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직후입니다.] 그가 물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랴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에 정착했습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유다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처음 몇 구절을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살해된 후, 그 동안 북쪽 지파를 다스렸던 이스보셋은 5장에서 읽습니다. 헤브론은 '우리는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동안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0세였다.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을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북방 지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전에 유다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도 남북 분단을 향한 성찰적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연대기에 관한 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보다 실제로 앞선 것인데, 다윗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는 사울 통치 기간에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유다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였더니 그가 그것을 유다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니 유다 성읍들의 여러 곳이 열거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기에 유다의 지도부와 유다 성읍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자 유다는 즉시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북쪽 지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호의 유다

자, 제가 앞서 언급한 또 다른 가능한 요소는 열왕기상 4장에서 솔로몬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솔로몬의 궁정을 지원해야 하는 지역을 살펴봤을 때 기억하세요. 이 열두 지역에 유다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유다에게 편애가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다시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4장에 있었습니다. 그 열두 지방 가운데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내 이름이나 그 지역에 대한 설명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도 유다의 영토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단지 추론일 뿐인데, 유다는 솔로몬을 위해 이 월간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지파인 유다에 대한 편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부족을 선호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분열적인 경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혼란 자체와 왕국이 두 부분으로 부서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배경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요인일 뿐입니다.

2. 솔로몬과 솔로몬의 죽음에 반대하는 여로보암 반역자 - 열왕기상 11:26-41

알겠습니다. 시트의 2번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죽음에 맞서는 여로보암 반란군"입니다. 열왕기상 11:26-41에서 여로보암은 종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불립니다.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귀한 자라 솔로몬이 그

소년의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족속의 모든 일을 감독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와 지파 영토의 우두머리가 된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두 지파의 일꾼을 맡았습니다. 그 자신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솔로몬의 신하이자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은 남쪽의 주요 지파에 대응하는 북쪽 지파였습니다. 그는 아히야가 와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에게 좋은 몫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솔로몬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나는 37절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말하는데, 여기서(이것은 아히야의 말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요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미 왕국을 생각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자, 당신이 기억하듯이, 이 노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인 이 사람은 분명히 이미 통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언자 아히야와 대면하여 말과 상징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아히야가 이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열두 조각으로 찢었고 여로보암에게 자기를 위해 열 조각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상징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그에게 열 지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및 내가 모든 지파 중에서 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에게 한 지파가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 열 지파를 취하여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과 상징으로 그에게 말하는 아히야와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아히야는 더 나아가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34-35절에 “내가 온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평생을 다스릴 것이며 내가 택하여 내 명령과 법도를 행하게 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내가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어 내 종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하리라.” 그래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이 열 지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거나 솔로몬의 죽음을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도 반란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반역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40절에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으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여 시삭 왕에게 나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했다는 26절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는 40절을 함께 대입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도 설부르게 북방 지파를 장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류는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왕좌에 오를 때 어떤 종류의 통치가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길한 징조를 제공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처음부터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가져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솔로몬이 죽기 전에 성공적으로 왕국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의 혈통, 즉 그의 후손들로부터 열 지파를 취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본 장

앞부분에 그 이유가 주어졌습니다. 9-13절: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갔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찢어내어 중한 사람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아.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의 33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몰렉을 섬기고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를 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하리로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지라 그래서 그는 언약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좇았습니다.

좋아요, 숫자 "2", "솔로몬에 대항하는 여로보암 반란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41절 끝에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읽게 됩니다. “솔로몬의 남은 모든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책에 기록되니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 - 열왕기상 12장

따라서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는 11장 끝에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읽습니다. 정상적인 계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갔던 세겜으로 갔다”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북쪽 부족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으나 나중에야 북쪽 지파의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면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애굽으로 돌아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당신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한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요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회중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가혹한 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충고했던 몇몇 조언자들과 의논했고, 그들은 그에게 동의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젊은 조언자들과 의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와 함께 자란 소년들이 이르되 당신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되 무겁게 하라 하던 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새끼 손가락으로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셨으니 내가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채찍질하셨으니 나는 전갈 채찍으로 채찍질하리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채찍질하였으니 나는 전갈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전갈은 날카로운 금속이나 돌 또는 잘릴 만한 것으로 채워진 가죽 끈입니다. 과업이 강화되고, 형벌이 강화되며, 확실히 이러한 말은 어리석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가진 진정한 언약적 왕의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로 배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16절에 있습니다. 네 장막으로, 오 이스라엘아. 다윗이여, 당신의 집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대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역을 맡은 아도니람을 보냈습니다. 그는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밑에서 그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왔다. 즉, 이 시점에서 왕국은 분할되었고 나머지 역사 동안 분할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열왕기상 11장 3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히야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가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낮추겠으나 영원히는 아니하리로다 그리하여 예언이 성취되었고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기간 동안 북왕국이 앗수르로 끌려가는 B.C. 722년까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16에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와 히브리 산문 사이의 구분선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시를 산문과 구별하는 히브리 시의 특징으로 보통 지적되는 일차적인 것은 대구법이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몫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가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평행선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장막으로” 그리고 “다윗이여 네 집을 돌보아라!” 거기에 이중 평행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문에서도 이와 같은 평행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은 물건을 넣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 종류의 반복적인 수사학은 일반적으로 셈족의 글의 특징입니다.

1. 이스라엘을 재정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 - 열왕기상 12:21-24

자, 그것은 "3"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a"는 "파괴"입니다. b는 르호보암, 아비아, 아사인 "유다의 처음 세 왕"이다. 따라서 "1"은

르호보암입니다. 왕상 11:42-14:31은 역대하 9:31-12:16과 유사합니다. 이제 두 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개요에도 있습니다. "a"는 "이스라엘을 재정복하려는 르호보암의 시도, 열왕기상 12:21-24"입니다. 그리고 "b"는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려는 시도를 먼저 살펴봅시다(열왕기상 12:21-24). 그 장의 끝까지가 아니라 21절의 시작 부분에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 북쪽 지파들을 강제로 진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왕국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그는 선지자와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에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올라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여호와와 말씀 곧 선지자의 말을 복종하니라 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부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 르호보암과 애굽의 관계 -- 열왕기상 14장

“b”는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14장으로 건너뛸니다. 열왕기상 14:25-28.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열왕기의 저자가 12장의 그 시점에서 북쪽에서 여로보암과 그가 금송아지 등을 세우는 일로 이동하고 14장까지 르호보암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 이하.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서 열왕기상 14:25을 읽습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을 약탈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 방패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취하여 르호보암이 대신 놋 방패를 만들었더라.”

이제 이 언급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추가 성경적 증거로 입증되는 왕국 시대의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집트

기록에서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더 큰 캠페인의 일부였다는 것을 배웁니다. 단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언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캠페인의 승리 비문이 테베의 한 사원 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문에서 시삭은 그가 약탈한 수많은 도시를 나열합니다. 이건 재미 있네; 그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도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북 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이 성읍하게 솔로몬에게 반역하려 했으나 실패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쳐 시삭과 함께 피난처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로보암과 시삭이 우호적인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삭이 가나안 땅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격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북왕국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삭과 이스라엘

자, 이 두 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 텍스트의 표준 두 권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히타이트,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텍스트는 James Pritchard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볼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 ANET으로 약칭합니다. 라는 컴패니언 볼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진구약성서 관련. 많은 경우 첫 번째 책에서 번역된 텍스트는 두 번째 책에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시삭이 쓴 승리 비문의 본문은 이 책의 263쪽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 그리고 안으로 고대 근동 사진 사진 349번입니다. 보여드리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8 페이지의 그림 349는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삭의 그림과 그 주위에

새겨진 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손크가 점령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도시들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삭과 동일합니다. Sheshonk와 Shishak은 동일합니다. 철자가 다른 이유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줘...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시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므깃도에서 발견된 기념비의 파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그가 이 캠페인 당시 므깃도에 일종의 승전비로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하다고때 근동 텍스트, 264 페이지. 하지만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에 언급된 시삭의 공격입니다.

평행 구절인 역대하 12장에 공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북쪽을 치지 말라고 한 선지자 스므야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의 지도자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시삭에게 넘기리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보시고 여호와와 말씀이 스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스로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속히 그들을 구원하리라 나의 진노가 시삭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여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전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나는 르압과 유다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공격이 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와 의로우심을 고백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약탈을 당하면서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 - 아비야

좋아요, 그것은 "르호보암과 그의 이스라엘 재정복 시도"와 그의 이집트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아비야 또는 아비얌으로, 그의 이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4:31-15:8과 역대하 13:1-22에 평행을 이룹니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은 불과 3년으로 짧았습니다. 14:31에서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특징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다윗 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그녀는 암몬 사람이었고 이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 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더라.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 전에 저지른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는 여호와에 대한 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은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를 아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하 13:15-18에서 우리는 그림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3:15: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쟁의 함성 소리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비야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이스라엘의 용사 중 사상자가 500,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복당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추적하여 벰엘과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아 시대에 권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우리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북쪽에서 온 여로보암의 공격을 이겼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이 믿음과 불신앙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시삭이나 북방의 이 공격에 의해서도 멸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증흥하심이 분명하였으니 이는 아비아의 마음이 마땅히 여호와를 향하여 온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열왕기는 3절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한지라”고 말합니다. 열왕기는 아비아를 많이 다루지 않았고 그의 통치 기간은 짧았습니다.

유다의 셋째 왕 - 아사

계속해서 유다의 세 번째 통치자인 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열왕기상 15:8-24 및 역대하 14-16). 이제 아사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9절을 봅니다. 그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보다 길다. 사울의 통치 기간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설명하는 구절에는 텍스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삼상 13:1 나는 믿습니다. NIV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삼십 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NIV는 말합니다. 텍스트에 거기에 삼십이 있습니다. NIV 본문 주석이 히브리어에 "forty"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따라서 사울이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는지는 다소 모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21에 있을까요? 예, “백성이 왕을 구하매 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사십 년을 통치하게 하니라.” 그러나 1 Sam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1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울은 한 살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가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NI

V에 있는 대로 읽으면 그는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십이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40은 더 정확한 42와 비교할 때 어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상 13장 1절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텍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42년 동안 통치했다면 내가 아사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것은 아사가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오래 통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은 40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사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마음이 올바른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1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산당의 기생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역겨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사가 그 장대를 찍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격은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와 그의 아버지가 구별하여 드린 은금 곧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다가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가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높은 곳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소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5분간 휴식을 취합시다.

Kristen Ramey가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

